

반도체 시장 양극화 심화... 삼성·SK, AI 중심 인프라 확장

미래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 나서
삼성 천안 HBM 생산거점 건립 추진
SK 청주 M15X 공장 조기가동 방침

반도체 시장 수요 제품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반도체 설비 인프라 확장도 고대역 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3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이 AI 반도체에 전문화된 자본을 쏟아부으며 향후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날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는 AI 열풍에 힘입어 내년 5nm(나노미터) 공정 가동률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며 2025년 상반기 전망을 내놨다. TSMC는 올 4분기 양산형 전자기기의 비수기와 애플의 내년 1분기 아이폰 '테이프아웃(반도체 설계 결과물을 파운드리에 전달하는 것)' 물량이 10%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TSMC 측은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하며 공장 가동률에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서도 AI 반도체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체를 중심으로 한 매출·이익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CEO는 지난달 컨퍼런스콜에서 "AI가 없었다면 시장은 침울했을 것"이라며 "AI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분야의 수요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 또한 마찬가지다. HBM 3E 8단의 엔비디아 납품이 지연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싸이클에서 일시 탈락하며 처참한 실적을 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HBM3E 8단을 사실상 독점공급하면서 3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냈다.

두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AI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HBM 관련 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충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월 충청남도와 충남 천안에 대규모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거점을 2027년까지 건립

하기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28만㎡ 부지 내 건물을 임차해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 HBM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AMD와의 협업 강화도 본격화 한다. 삼성전자는 조만

간 AMD 분사에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을 보내 차세대 GPU 적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공장 가동을 당초 계획 보다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M15X 파견 인력 규모 구성을 위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M15X는 청주 M15 공장 옆에 세워지는 D램 생산라인이다. 내년 11월 준공이나 HBM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입 인력을 늘리면서 가동시기 또한 앞당기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M15X 가동시 SK하이닉스의 HBM 생산능력은 20~30% 확대 될 예정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투자 경쟁이 2025년에도 계속돼 SK하이닉스 등 HBM주는 글로벌 AI 모멘텀과 함께 주도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산업부,尹정부 성과·계획 발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트럼프 2기, 새로운 기회로”

주요 성과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꼽아
 “수출 온기 확산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 출범 시부터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다”며 “산업부는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먼저,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수출은 지난해 일시적인 정체기를 맞았으나, 10월부터 반등을 시작해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이미 올해 9월 작년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자동차도 매월 최대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선박도 3~4년치 수주물량이 확보된 가운데,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으로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확실시되는 상황

이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지난해 327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3분기까지 252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도 성과로 꼽힌다. 우선, 탈원전 때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했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대형원전 3기,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반영했고, 국회보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부지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전 일감은 생태계 정상화 이후 올해까지 9조원 정도가 발주됐고, 2027년까지 총 11조원 규모 추가 발주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다만 “아직 우리 경제 곳곳에 산업부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며 “위기 요인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한 살려 신 행정부와 적극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결제에서 라이프까지
됩니다

다 되는 페이 KB Pay

준법감시인심약필 제240402-01381-ADP (2024.4.2~2025.4.1)

KB국민카드